

23-07 2023.06.12

# 현안과 과제

-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경기 회복 모멘텀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 목 차

## ■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경기 회복 모멘텀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	i
1. 수정 전망 개요 .....	1
2. 수정 전망 배경 .....	2
3. 시사점 .....	5
<부표> 주요 금융지표 및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	9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저 자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경기 회복 모멘텀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 ■ 수정 전망 개요

2023년 한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6%보다 하락한 1.2%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제 주체의 심리 개선 미약,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수출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반등의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1.8%에서 1.2%로 하향 조정하였다.

<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구 분	2021년 연간	2022년			2023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4.3	3.0	2.3	2.6	0.9	1.5	1.2
민간소비 (%)	3.6	4.0	4.2	4.1	3.0	1.3	2.2
건설투자 (%)	-1.6	-3.8	-1.9	-2.8	0.6	0.3	0.5
설비투자 (%)	9.3	-7.0	5.5	-0.9	4.5	-5.0	-0.3
수출증가율 (%)	25.7	15.6	-2.4	6.1	-13.0	1.2	-6.1
소비자물가 (%)	2.5	4.6	5.6	5.1	4.0	2.8	3.4
실업률 (%)	3.7	3.3	2.5	2.9	3.1	2.8	3.0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3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 수정 전망 배경

##### ① 하반기 경기 부진 가능성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착륙 이후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주체의 심리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하반기 내수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 경기는 현재로서는 하반기 수출이 반등하고 내수 시장이 개선되면서 경기 전환점이 마련되어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U'자형 경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소비가 더 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L'자형 장기 침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 ② 내수 회복 모멘텀 상실 우려 상존

**2023년 하반기 들어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부진한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분기 경제성장을 견인한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구매력 약화 및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점차 위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 및 고물가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약화된 영향에 기인한다. 특히,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 부담이 가중, 가계 소비 여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주요 방역 조치 해제로 인한 소비자심리 개선 추세가 지속된다면 감소세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설비투자는 ICT투자를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기저효과로 최근 설비투자가 증가(4월 전년동기비 4.4%)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부진 및 기업의 투자심리 악화로 설비투자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③ 수출 경기 회복 지연

**수입 감소세 확대에도 주력 품목 및 시장에서의 수출 개선이 지연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우려가 확대되는 등 하반기에도 부진한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반도체 및 중국 시장에서의 불황이 장기화한 상황이며 글로벌 투자 위축, 미·중 분쟁 심화 등 하방 요인의 영향으로 하반기 반등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 반면 수입은 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약화 등으로 하반기까지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연간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상수지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운송수지 및 여행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로 2022년 대비 흑자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시사점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경기가 부진하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거나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경기의 안정성 확보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 부진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외교 성과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 수출 증대를 위한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저성장·고금리·고물가 충격이 가장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 1. 수정 전망 개요

○ 2023년 국내 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022년(2.6%)보다 하락한 1.2%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23년 경제성장률은 1.2%로 종전 전망 대비 하향 조정(Δ0.6%p)

- 경제 주체의 심리회복 지연, 민간소비 및 투자 위축, 수출 회복 지연 등으로 예상보다 국내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 이로 인해 2023년 경제성장률은 1.2%로 1월 전망 수준(1.8%)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소폭 확대되는 '상저하고' 예상

<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4.3	3.0	2.3	2.6	0.9	1.5	1.2
	민간소비 (%)	3.6	4.0	4.2	4.1	3.0	1.3	2.2
	건설투자 (%)	-1.6	-3.8	-1.9	-2.8	0.6	0.3	0.5
	설비투자 (%)	9.3	-7.0	5.5	-0.9	4.5	-5.0	-0.3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83	249	50	298	-40	290	250
	무역수지 (억 달러)	293	-109	-368	-478	-290	16	-274
	수출증가율 (%)	25.7	15.6	-2.4	6.1	-13.0	1.2	-6.1
	수입증가율 (%)	31.5	26.4	12.4	18.9	-7.6	-9.3	-8.5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6	5.6	5.1	4.0	2.8	3.4	
실업률 (%)	3.7	3.3	2.5	2.9	3.1	2.8	3.0	
취업자수 증감(만 명)	37	94	69	82	35	40	38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3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2. 수정 전망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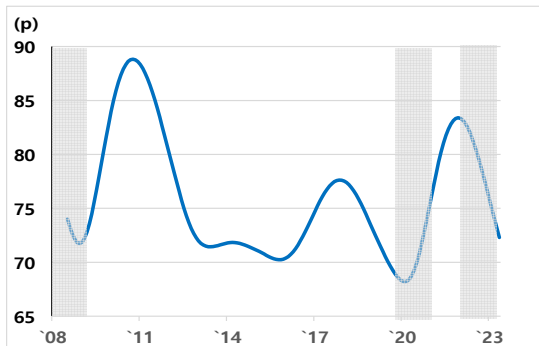
### ① 하반기 경기 부진 가능성

-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착륙 이후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도 상존

- 경제 주체의 심리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하반기 내수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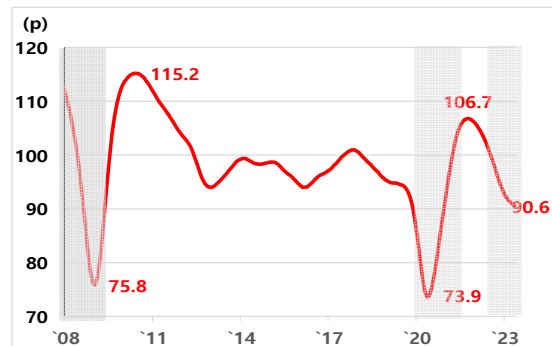
- BSI(업황실적)는 추세적으로 살펴봤을 때 2021년 말을 최측근 정점으로 2023년 5월까지 하락세가 지속<sup>1)</sup>
- BSI와 소비자심리지수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의 순환변동치(원계열에서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을 제거)는 2021년 10월 고점 기록 후 19개월 연속 하락세

< BSI(업황실적)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HP필터를 이용해 추세 제거.

< 경제심리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 국내 경기는 하반기에도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L'자형 경기 추세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현재로서는 하반기 수출이 반등하고 내수 시장이 개선되면서 경기 전환점이 마련되어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U'자형 경로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그러나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소비가 더 이상 경제의 안전

1) HP 필터를 이용해서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을 제거.

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L'자형 장기 침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sup>2)</sup>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② 내수 회복 모멘텀 상실 우려 상존

○ 2023년 하반기 들어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부진한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분기 경제성장을 견인한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구매력 악화 및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점차 위축될 전망

- 2023년 2~3월 반등하였던 소매판매는 4월 -1.1%(전년동기비)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다시 감소세로 전환
-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 및 고물가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악화된 영향
- 또한,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 부담이 가중, 가계 소비 여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주요 방역 조치 해제로 인한 소비자심리 개선 추세가 지속된다면 감소세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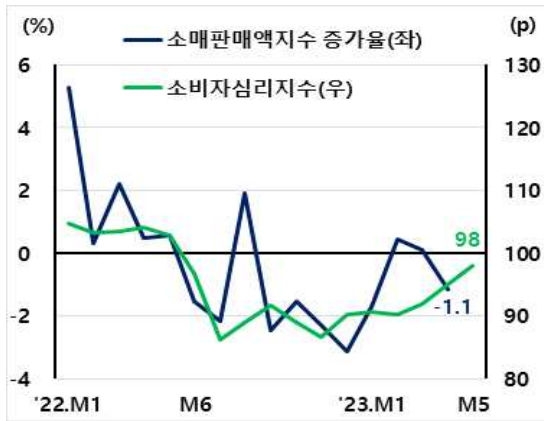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ICT투자를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

2) 현대경제연구원, 2023.06.02. “경착륙(硬着陸), 시작되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2분기)”에서 재인용.

- 지난해 기저효과로 설비투자는 4월 4.4%(전년동기비)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부진 및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로 설비투자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ICT설비투자지수 증가율(전년동기비, %): ('23.M2) -6.6 → (M3) -9.1 → (M4)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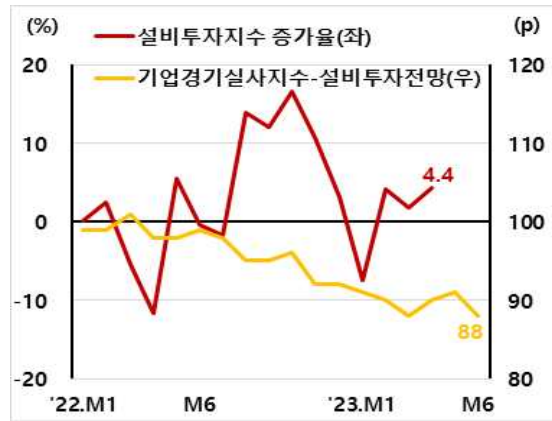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및 소비자심리지수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기준.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및 기업경기실사지수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기준.

### ③ 수출 경기 회복 지연

- 수입 감소세 확대에도 주력 품목 및 시장에서의 수출 개선이 지연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우려가 확대되는 등 하반기에도 부진한 국면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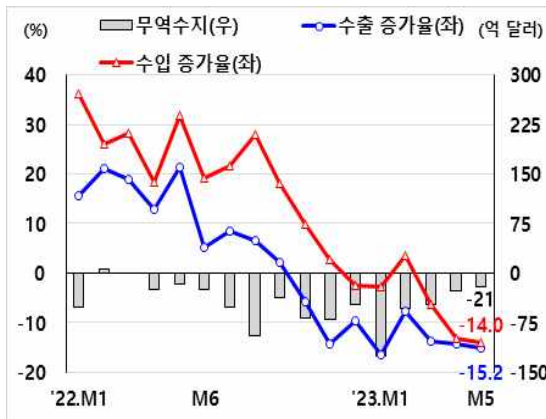
- 수출은 반도체 및 중국 시장에서의 불황이 장기화한 상황이며 글로벌 투자 위축, 미·중 분쟁 심화 등 하방 요인의 영향으로 하반기 반등 기대감이 약화
  - 국내 수출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수출 1위 대상국인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영향으로 최근 침체 폭이 확대되면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 통화 긴축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가능성, 중국의 내수 회복 부진 및 미·중 반도체 갈등 등으로 수출 경기는 하반기에도 불확실성 지속 전망
- 수입은 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약화 등으로 하반기까지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연간 무역수지는 적자 전망



-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ICT 투자 부진, 건설수주 불황 장기화 등 여건상 하반기에도 수입수요 회복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 이에 무역수지는 수출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불황형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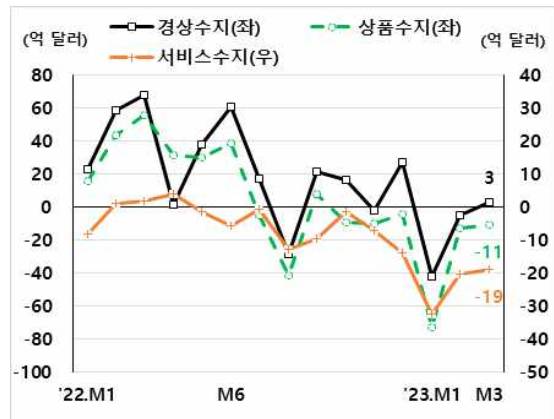
○ 경상수지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운송수지 및 여행수지 적자 지속<sup>3)</sup>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로 2022년 대비 흑자 폭 축소 전망

< 월별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월별 경상수지 부문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3. 시사점

-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경기가 부진하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거나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이 필요

첫째,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3) 운송수지(억 달러): ('22.M12) 1.7 → ('23.M1) 1.2 → (M2) -2.2 → (M3) -0.2  
 여행수지(억 달러): ('22.M12) -11.4 → ('23.M1) -14.9 → (M2) -10.1 → (M3) -7.4

- 현재 한국경제는 내·외수 복합불황이 심화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경기 활성화' 또는 최소한 '경기 연착륙'을 위한 경제 정책 기조가 필요
- 이를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단기적으로는 유연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
  -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중장기 목표를 추구하되,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방어,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도 고려할 필요
  - 통화정책도 '물가안정 목표'와 '통화가치 안정성 확보' 및 '금융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내외 금리차, 인플레이션, 자금시장 경색, 실물 경제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대처 요구

**둘째, 국내 경기의 안정성 확보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한 가계 소득 기반 및 소비 여력 확충, 다양한 소비 진작책 마련, 국내 관광 만족도 제고 등을 통한 소비의 경기 안정화 기능 유지가 중요
  - 핵심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 기반과 소비 여력을 확충함으로써 단기 및 중기 소비 기반을 강화
  - 신성장 산업 및 기술 육성의 기반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 촉진 세제 등을 도입
  - 국내 관광 인프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취약계층 여행 경비 지원 등을 통한 관광 수요 진작과 더불어 관광지 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관광 만족도를 제고
  - 대외 홍보 강화, 출입국 절차의 합리적인 개선 노력 지속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

- 적극적인 규제 완화 지속,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투자 유인 확대, 신산업 및 신기술 전략의 구체화 및 정부 투자 로드맵 조기 확정·제시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
  -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가속화하여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도모
  - 투자세액 공제제도 확대, 중소·벤처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신용공여시스템 활성화, 시장자금조달 원활화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자금시장의 불확실성 및 기업 투자 심리 악화를 예방
  - 디지털 전환이나 그린 전환과 같은 국가 차원의 신산업 및 신기술 전략의 구체화 및 정부 투자 로드맵 조기 확정·제시 등을 통해 신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신시장 신산업 진출을 촉진

셋째, 수출 부진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외교 성과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 수출 증대를 위한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및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해소 노력 지속
  - 미국의 경우, 배터리 및 전기차,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수출 상품 및 제조 기업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커 기존 통상외교 성과를 현실화하는 것에 주력할 필요
- 대 중국 수출 부진은 합리적인 통상외교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아시아 개도국 등 신흥시장 개발 확대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구축
- 한류의 적극적인 활용,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 등의 노력도 병행

넷째, 저성장·고금리·고물가 충격이 가장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 강화, 저소득층 부채의 정부 보증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의 전환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기반과 소비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기존 사회안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임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부표> 주요 금융지표 및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 주요 금융지표 및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

구분			2021	2022		2023			
				상반	하반	Q1	Q2(E)	Q3(E)	Q4(E)
금융지표	환율	원/달러	1,190	1,299	1,260	1,302	1,313	1,286	1,259
		엔/달러	155.1	135.7	131.1	132.9	133.5	130.3	127.9
		달러/유로	1.14	1.05	1.07	1.08	1.09	1.10	1.11
		위안/달러	6.36	6.70	6.90	6.87	6.92	6.85	6.78
		국고채금리 (3년, %)	1.80	3.55	3.72	3.27	-	-	-
		코스피지수(p)	2,978	2,333	2,236	2,477	-	-	-
국제유가 (\$/배럴)		WTI	75.2	105.8	80.3	75.7	80.2	82.2	82.3
		Dubai	77.1	113.4	78.8	78.1	-	-	-
		Brent	77.8	114.8	85.9	79.8	84.4	87.1	87.9

자료 : 한국은행(국고채금리, 코스피지수), 블룸버그(환율), 국제유가(페트로넷).

주1) 실적치 및 전망치 모두 기말 값 기준

주2) 전망치는 주요 IB 5월 전망치 평균 기준.